

##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수립 107주년 기념식

(사)효창원8위선열기념사업회 회장 이종래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2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7주년을 맞이하여 (사)효창원8위선열기념사업회(회장 이종래)는 효창원 의열사 본전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선열님들과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열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및 의원, 본위원회 고문 및 임원과 특별히 이규중 대한민국 광복회 부회장, 남산시민대학 옥윤호 학장을 비롯한 학생 및 월남전참전자회 전우(50명 참석)와 효정봉사단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하였다. 효정봉사단원(총지휘 임영호 목사) 50여 명은 행사 시작 전부터 내빈 안내와 의자 정리 등 최종 마무리 정리 작업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손은봉 감사의 우렁찬 개회선언과 함께 권재안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순은 국민의례, 8위선열 약사보고(책자참고)에 이어 웅변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채에서 연사의 〈부활〉, 이연미 연사의 〈왕대밭에 왕대난다〉에서 일제 치하에서 구국헌신한 애국지사들의 구국 활동을 웅변하였다.

이어서 이종래 회장의 인사말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송모사에 이어,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광복회장(이종찬) 대리 참석한 이규중 부회장, 남산시민대학 옥윤호 학장의 송모사가 이어졌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며 상임위원인 윤 주 고문이 만세삼창을 선도하였다.

이종래 회장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이 일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제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 이룩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건국의 주역임을 밝히는 한편 후대인들은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참된 역사를 배우고 실천하여 후세에 전승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로 이루어진 효정봉사단원들이 이 땅에서 헌신봉사를 실천하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며 열심히 살고 있기에, 한층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희영 구청장은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이룩하며 민족번영을 이루어 세계 속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힘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8위 선열님들이 모셔진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으로 독립의 역사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은 3.1정신을 이어받아 독립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길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광복회 이규종 부회장은 일제의 침략자들에 맞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8위 선열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이어가는 것은 후대인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

옥윤호 남산시민대학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된 조국은 8위선열님들의 피와 희생의 대가이며, 나라 잃은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대가로 이제 세계적 열강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8위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번영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승모제례행사는 초헌관에 이종래 회장, 아헌관 옥윤호 학장, 종헌관 김 숙 회장이 제례행사를 주관하였고, 오병두 전례위원장의 전례순서에 의해 진행, 대축은 조규면 부회장이 담당, 여덟분 선열에 대한 제례가 40분가량 진행되었다.





## 한국문인협회,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 개최... 운문·산문 부문별 열띤 경연

〈기사 자료제공 : 김민정 한국문협 상임부이사장〉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이 5월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가운데 김호운 한국문협 이사장의 개회사 선언 장면/  
사진: 장건섭 기자

### 청소년 문학 꿈나무들의 감성을 펼친 백일장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동서식품주식회사와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지리산문학관이 협찬한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이 5월 9일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래일보

▲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표윤서(경인고등학교 3학년)에게 김호운 한국문협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장면/ 사진: 장건섭 기자



미래일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동서식품주식회사와 사단법인 인산학연구원 지리산문학관이 협찬한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이 5월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사진 중앙의 심사위원과 부문별 수상자들의 기념촬영<사진: 장건섭 기자>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이 5월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가운데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노창수 한국문협 부이사장의 심사평 발표 장면/사진: 장건섭 기자

##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 대상 수상작

- 산문부문 : 표 윤 서의 <오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올해 백일장 대상은 고등부 산문 부문에 응모한 서울 경인고등학교 3학년 표윤서의 <오월>이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섬세한 감수성과 안정된 문장력, 청소년 특유의 순수한 시선이 돋보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번 백일장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문과 산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오전 10시, 발표된 <오월>, <편의점>, <할머니>를 주제로 제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언어와 상상력을 펼쳐 보였다.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게 한국문협 부이사장 및 분과회장 등이 상장 수여 및 기념촬영 장면/사진: 장건섭 기자

행사는 참가자 등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민정 협회 상임부이사장 (시인)의 사회 아래 심사위원 소개 및 유의사항 전달 순으로 이어졌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0여 명의 학생들은 각 부문 지정 좌석에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원고 작성에 몰입했다.



▲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표윤서(경인여자고등학교 3학년)의 수상 소감 발표 장면/사진: 장건섭 기자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청소년백일장'이 5월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개최했다. 김민정 한국문협 상임부이사장의 대회 진행 장면/사진: 장건섭 기자

중등부와 고등부 참가자들은 운문과 산문 분야에서 치열한 창작 경쟁을 펼쳤고, 본심 심사 이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심사평과 함께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또한 문화공연으로 마련된 '마술공연'은 긴장 속 경연을 마친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참가자와 심사위원들의 기념촬영도 이어져 문학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김호운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청소년들의 언어는 언제나 시대보다 먼저 미래를 감지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뜨거운 감성이 한국문학의 새로운 내일을 밝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은 단순한 글쓰기 대회를 넘어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문학으로 나누는 소중한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청소년백일장'에서 수상자에게 한국문협 부이사장의 상장 수여 장면/사진: 장건섭 기자

문화의 장”이라며 “한국문인협회는 앞으로도 젊은 문학 인재 발굴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창수 심사위원장(협회 부이사장, 시인)은 심사평을 통해 “올해 응모작들은 청소년 세대 특유의 감각과 현실 인식이 매우 진솔하게 드러난 작품이 많았다”며 “특히 대상작 <오월>은 평범한 일상 속 시간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면서도 문장 구성과 정서의 흐름이 안정적이었다”고 평했다.

노 심사위원장은 이어 “문학은 결국 인간과 삶을 깊이 바라보는 힘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의 글 속에서 우리 문학의 건강한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인 표윤서 학생은 수상 소감을 통해 “평소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믿기지 않는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에 참여한 학생들/사진1: 장건섭 기자

다”며 “문학이 제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표윤서는 또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위로할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함께 응원해 준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37회를 맞은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 문학 인재를 발굴해 온 국내 대표 청소년 문학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성과 사유를 직접 글로 표현하고, 또래들과 문학적 공감대를 나누는 창작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김민정 한국문협 상임부이사장(시인)은 “청소년 문학의 저변 확대와 미래 독자·작가 양성이란 측면에서 마로니에 백일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언어와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 〈각 부문별 입상자 명단〉

### ■ 고등부 산문 부문(제목/ 소속 학교)

- △ 대상 : 표윤서(오월/ 서울경인고등학교)
- △ 장원 : 서주원(오월/ 춘천여자고등학교)
- △ 차상 : 김재현(할머니/ 상문고등학교)
- △ 차하 : 박채은(오월/ 충렬여자고등학교)
- △ 참방(10명) : 이유림(오월/ 안양문화고등학교), 이주아(오월/ 건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정양건(할머니/ 대전만년고등학교), 박준안(오월/ 고양예술고등학교), 유지안(오월/ 매홀고등학교), 이해연(할머니/ 안양예술고등학교), 한주희(할머니/ 학교밖청소년), 조효빈(할머니/ 광문고등학교), 박수연(오월/ 부명고등학교), 서한비(할머니/ 포항동명고등학교)

### ■ 고등부 운문 부문(제목/ 소속 학교)

- △ 금상 : 유민영(오월/ 서인천고등학교)
- △ 장원 : 이서경(오월/ 마포고등학교)
- △ 차상 : 최서윤(편의점/ 안양예술고등학교)
- △ 차하 : 최영윤(할머니/ 성남외국어고등학교)
- △ 참방(14명) : 강나연(오월/ 고양예술고등학교), 김도언(오월/ 안양예술고등학교), 장혜미(편의점/ 인천금융고등학교), 김나은(편의점/ 고양예술고등학교), 이수빈(오월/ 안양고등학교), 손은혜(할머니/ 안양예술고등학교), 변시영(할머니/ 남원여자고등학교), 오원중(할머니/ 김포제일고등학교), 최영인(할머니/ 중앙예담고등학교), 김소이(오월/ 수원여자고등학교)

### ■ 중등부 산문 부문(제목/ 소속 학교)

- △ 장원 : 이연주(할머니/ 인천원당중학교)
- △ 차상 : 손종민(할머니/ 부산남산중학교)
- △ 차하 : 윤하진(할머니/ 일동중학교)

△ 참방(5명) : 정보예(오월/ 수원북중학교), 정아린(오월/ 대구불로중학교), 이가은(오월/ 와부중학교), 이휘영(오월/ 완도여자중학교), 박이솔(편의점/ 장원중학교)

■ 중등부 운문 부문(제목/ 소속 학교)

△ 장원 : 박운유(할머니/ 광주용봉중학교)

△ 차상 : 이유담(오월/ 안산해솔중학교)

△ 차하 : 박나은(편의점/ 고양양일중학교)

△ 참방(5명) : 황지향(할머니/ 전농중학교), 김단아(할머니/ 세곡중학교), 양세영(편의점/ 충남태안여자중학교), 윤 봄(할머니/ 대전신계중학교), 손초아(할머니/ 전북함라중학교)



▲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에서 각 부문 수상자에게 한국문협 각 분과회장이 상장 수여 및 기념촬영 장면/사진 : 장건섭 기자







혜원 노금선 작품전

## 멈추지 않는 계절/ 보이는 詩, 들리는 그림

▲제8시집 《비어진 자리로 빛이 들어왔다》 출판기념

- 2026. 4월 20일~25일, <대전갤러리>



혜원 노금선 작품전

# 멈추지 않는 계절

보이는 詩, 들리는 그림

NEVER ENDING SEASON  
POEMS IN SIGHT, AN AUDIBLE PICTURE

2026. **4. 20**(월) - **4. 25**(토)

Opening\_ **4. 20**(월), 오후 4:30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갤러리



#### ▲ 노금선 화백

- 호 혜원, 문학박사,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한남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석사, 박사) 수료,
- 대전 MBC 아나운서, 한남문인회 발전위원장, 국제시사랑협회 이사장, 대전시낭송가협회 고문, 한국 근·현대역사보존회 이사장,
- 수상: 대전문학상, 천등문학상, 한국문화예술인 대상, 올해의 예술가상, 예술문화상, 대한민국 시낭송 대상, 한남문인상, 시와정신 문학상, 사회복지공헌대상 외, 등을 수상했다.
- 현) 실버랜드 원장(선아복지재단 이사장)

혜원 노금선 화백의 예술세계를 응축한 <멈추지 않는 계절/ 보이는 詩, 들리는 그림> 작품전이 2026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전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혜원 노금선 화백의 25년만의 첫번째 개인전이다.

작품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제선 대전중구청장, 노덕일 대전중구 문화원장, 지성업 산성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대전예술포럼 고문 등 대전의 목민관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인사와 하객 200여 분을 모신 가운데 오프닝 행사를 마치고, 성황리에 작품전이 열렸다. 아울러 80주년 생일 기념으로 출간한 제8시집 《비어진 자리로 빛이 들어왔다》 출판을 기념하여 하객들에게 시집을 선물하였다.

노금선 화백은 문학박사, 시인, 시낭송가로 한국문단의 일익 담당해 왔다. 지역에서는 문단의 시낭송회 행사를 이끌며, 전국의 문인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가 지대한 현역 문화예술인이다.<충청데일리 김구희 기자/ 기사 부분인용>



▲ 노금선 화백의 인사말



▲ 노금선 화백의 아들의 축하케익





▲ 백은기 국제휴먼 클럽 총재



Congratulations on the Cover Story. Like an Angel. Rev. SYB.



▲ 이채유 MC의 사회



▲ 이강철 시낭송가협회 회장의 시낭송



▲ 지성업 산성감리교회 담임목사의 축사



▲ 손혁건 국제시사랑협회 회장의 시낭송



▲ 정상철 대전예술포럼 고문이 감사패 전달



▲ 박춘자 국제시사랑협회 이사장의 축사



▲ 김연옥 전 대전여약사회장의 색소폰 연주



▲ 김완하 한남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축사



▲ 전은겸 시인의 시낭송



▲ 손혁건 국제시사랑협회 회장의 시낭송



▲ 정상철 대전예술포럼 교문의 감사패 전달



▲ 이장우 대전시장의 축사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의 축사

시와정신시인선 59

# 비어진 자리로 빛이 들어왔다

노금선 시집



시와정신사

## 〈제6회 괌 K-POP 청소년 축제 콘서트〉

### 이강철, 심미옥 시인 모델



2026년 2월 14일부터 15일 동안 〈제6회 괌 K-POP 청소년 축제 콘서트〉에 초청되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어라', '칠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시낭송과 궁중 한복 패션을 선보여 한국 교민들에게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강철, 심미옥 시인 모델은 국내외를 아울러 활동하는 글로벌 시낭송가 모델이다. 축제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궁중 한복 패션쇼'에서는 '그리스 최' 디자이너의 품격 높은 의상을 선보였다.

이강철, 심미옥 시인은 패션쇼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무대에서 아름다운 시 낭송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K-POP을 즐기러 온 괌 현지 청소년들과 시민 약 1,000여 명에게 한국 문학의

깊이와 전통의 미를 동시에 전하며 무대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괌 태평양 장로교회 창립기념 주일 예배에도 초청되어 전통한복차림으로 애국시 '칠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한국어와 영어로 낭송하여 교민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며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 괌 K POP 청소년 축제 한국 공연단은 국제문화예술총연합회 권은주 대표의 추진으로 이루어 졌다.

##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성과

이번 행사는 한국과 괌 간의 문화 교류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되었고 괌 교육청 방문 및 교육청장 면담 등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으로도 평가받았다.

- 괌 주지사 및 부지사 공식 방문 - 감사장 받음
- 괌 관광청 방문 및 감사장 받음
- 괌 주의회 의원 4인 공동 서명 감사장 받음

K-POP에 열광하는 현지 청소년들에게 태극기 물결과 함께 대한민국 정통 궁중 한복의 아름다움을 시 낭송 퍼포먼스로 녹여내어 큰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괌 정부 및 의회로부터 공식 감사장을 받았고 국위선양의 일익을 담당했다.



2026. 4. 14 (TUE) PM 5:00 OPEN

# 강남 나우리 모델 아카데미

With 詩낭송

## 봄학기 개강

일시: 2026. 4. 14 (화) 17:00 (오후 5시)

기간: 12주 과정

장소: 나우리 아트센터 아트홀  
(서초대로 55길 9 나우리빌딩)



지도교수 심미옥  
(런웨이 모델)



지도교수 이강철  
(詩낭송)

수강료: 50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104-667684  
(나우리아트센터)

문의: 070-7720-9195 / 010-2716-5399

NAURY ART CENTER 나우리 아트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5길 9 나우리빌딩





심미옥 이강철 강사와 함께하는 국회 패션쇼 시낭송  
 나우리모델시낭송아카데미 국회의원회관 자유복 런웨이



## 문학, 바다를 건너다 - 시낭송과 음악의 향연 서대문문인협회, ‘사랑도’에서 <칸타빌레 문학 기행> 섬마을 주민, 관광객도 함께한 ‘시낭송과 음악의 향연’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대문문인협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 사랑면 일원에서 지부 최초로 진행한 섬 문학기행에서 참석 회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대문문인협회 제공

(통영=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시 서대문지부 서대문문인협회(제12대 회장 이경희)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 사랑면 일원에서 지부 최초의 섬 문학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문학기행은 문학과 공연, 관광과 인문 교류가 어우러진 행사로 마련됐으며, 회원들은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시와 노래, 낭송과 예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당초 지부는 최초로 항공편 왕복 일정까지 검토했으나 외부 참여자 모집 일정 등의 사정으로 KTX와 15인승·12인승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회원들은 여수엑스포역을 거쳐 순천에 위치한 문학관을 탐방하며 문학기행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정채봉문학관’과 ‘김승옥문학관’을 둘러보며 한국 문학의 향기를 느낀 뒤, 그랜드페리호를 타고 통영 ‘사랑도’ 상도에 도착했다.

문학기행의 하이라이트는 16일 오후 사랑면사무소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12대 사랑도 칸타빌레> 공연이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펼쳐졌다.

공연의 시작은 김도연 사무국장의 국선도 시연으로 열렸다. 국선도 사범이기도 한 김사무국장의 지도 아래 회원들과 관객들이 함께 동작을 따라 하며 무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다.

현장을 찾은 청주에서 온 관광객 이모 씨는 “섬에서 이런 품격 있는 문학 공연을 보게 될 줄 몰랐다”며 “문인들의 시낭송과 노래가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악단장 최윤성 씨는 “섬에서 펼쳐지는 문인들의 시낭송과 노래를 들으니 어떤 공연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경희 회장이 제12대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추진한 대규모 행사로, 서대문문인협회 역사상 최초의 섬 문학기행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더했다. 회원들은 이 회장이 단체를 안정감 있게 이끌며 문학과 화합이 공존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고 입을 모았다.

문학기행은 무대 공연뿐 아니라 회원 간 우정과 교류로도 더욱 따뜻하게 채워졌다. 김지향 시인은 직접 캔 썸으로 김미영 시인과 함께

팬션에서 썩부침개를 만들어 회원들과 나누며 밤늦도록 문학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양인석 씨와 김세준씨의 노래와 춤은 현장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만들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서울시 서대문지부 서대문문인협회 제12대 이경희 회장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시 사랑면 일원에서 지부 최초로 진행한 봄 문학기행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대문문인협회 제공

특히 외부 시낭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영자의 시낭송은 깊은 울림과 안정된 무대 매너로 행사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지향 시인의 '동화구연'과 '하모니카 연주'는 한복 차림과 어우러져 무대의 정취를 더욱 빛냈으며, '민조시'를 쓰는 김미영 시인의 수줍은 듯 담백한 시낭송 역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번 사랑도 문학기행은 문학이 도시의 문학관을 넘어 섬마을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특별한 사례로 기록되며, 문학과 예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살아 있는 문화활동임을 다시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향 이강흥 시인 제보>

자유로운 정신

학고인사

# 한강문학

제43호PDF(2026.여름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권녕하(010-7773-6425)

대표메일 : hangangmunhak6425@naver.com

전용메일 : nh-kwon@hanmail.net

다음카페 : 한강문학

우편물 수취전용 : ☎03187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사서함 146호

인천사무국 : ☎22713 인천시서해구서곶로 314번길 21, 112동 201호

발행처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문학

인가번호 : 제2019-0014

법인등록번호 : 110351-0020146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종로 바 00250

ISSN : 2383-6954

발행일 : 2026년 6월 10일

발행인 : 권녕하

기획실장 : 이혜경

관리이사 : 최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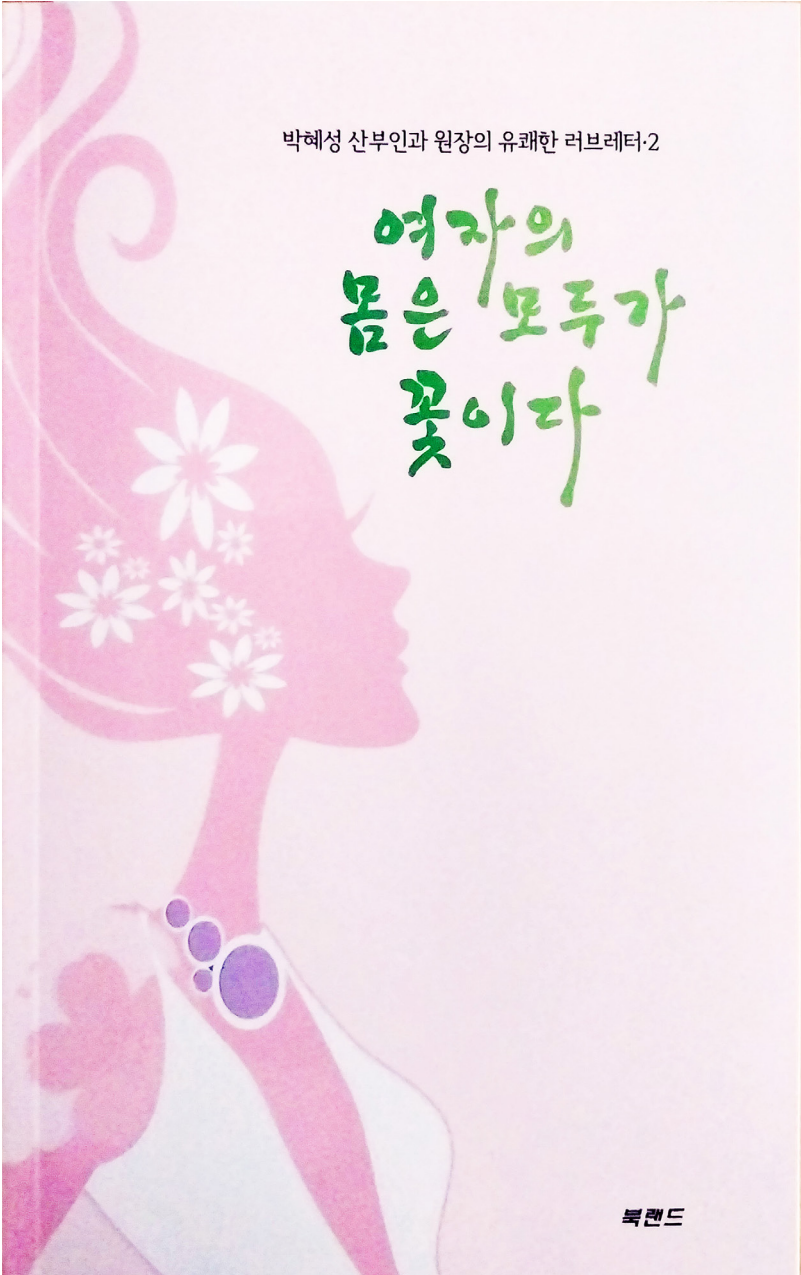


qrcode\_upaper.kr  
유페이퍼<한강문학>콘텐츠

- 가입비, 연회비 : 각각 10만원(최초 1회)
- 구독료 : 정가 5,000원
- 구독신청 : hangangmunhak6425@naver.com
- 한강문학 후원통장 : 국민은행 430501-01-349621(최연희)

박혜성 산부인과 원장의 유쾌한 러브레터·2

여자의  
몸은 모두가  
꽃이다



북랜드